

공동육아의 이념과 철학, 그리고 방법론

또 하나의 문화 펴냄 「함께 크는 우리 아이」

“내 아이만은 잘 키우겠다”며 요즘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시간과 노력과 돈은 실로 엄청나다. 내 아이, 내 아이만 잘 되면 남의 아이야 어떻게되든 상관없다는 것이 그 부모들의 생각이다. 차라리 치료비를 물어 주는 한이 있어도 때리고 들어오는 것이 맞고 들어오는 것보다 백번 낫고,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옆사람에게 치근대고 높고 소리를 질러대도 기죽이 싫다며 한마디 뭐라 않는 것이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았다든 요즘 엄마들의 육아법이다.

조기교육이라는 이름의 교육열병은 또 어떤가. 언어는 어려서부터 무의식적으로 습득돼야 장벽을 느끼지 않는다며 돌도 채 넘기지 않은 영아에게 영어테이프를 들려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속셈에 책읽기, 태권도에 피아노까지 교육은 이룰수록 좋다며 취학전 아이를 학원순례시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러나,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조심스럽게 관찰해 보면 부모들의 기대에 찬 열정과 아이들의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그들의 표정이 이를 증명하고 최소한의 공중도덕도 모르는 아이를 보고 “참 버릇없다”며 부모를 한번 더 쳐다보지 “밝고 씩씩하다”고 꼬덕일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 현실을 볼 때 “아이들은 행복한가, 그들은 우리가 살고 싶은 그런 세상을 이루어갈 사람들로 자라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어쩔 수 없이 던져보게 된다.

만약, 육아에 쏟아붓는 지금의 노력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런 식으론 가만 갈수록 미궁에 봉착할 뿐이라는 예견이 과학적으로 논증 가능한 거라면 이제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분명 이견 아닌데, 하지만 세상이 다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아이만 뒤처지게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한다. 남이 안한다면 나도 내 아이를 마음껏 놀리면서 키우고 싶다”는 ‘열혈’ 부모들의 솔직한 고백은 그런 예견의 뒷받침한다.

학자 및 민인지역 탁아운동가들 공동집필

최근 공동육아연구회에서 ‘공동육아 시리즈’ 첫권으로 펴낸 「함께 크는 우리 아이」(또 하나의 문화)는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만든 글모

이 책은 육아에 대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고민을 고루 담고 있다.

하나하나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들이다. ‘공동육아’는 공식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함께하는 매일의

생활”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어려서부터 ‘나’ 아닌 ‘타인’의 존재를

알게 하고,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한다.

음이다. 맞벌이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육아는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에서부터 아이들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크기를 원하는지를 물론 꼭 그 입장이 될 수는 없지만 가끔씩 그 편에 서서 생각을 해본 글들이다. 더 부연하면, 걱정스런 현재의 육아문화를 여러 측면에서 점검해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시도들을 소개하고, 공동육아의 이념과 철학, 방법론들을 정리한 드문 시도의 책이다.

내용 구성은 크게 5장으로 나뉘어 있다. ‘아이와 엄마’ ‘조기교육의 신화’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길’ ‘어린이운동과 공동육아’ ‘공동육아의 이념, 철학, 방법론’의 주제들이다. 다시 각 장은 ‘아이와 엄마’ 편에서는 중산층 전업주부의 육아상황과 정신건강에 대해 쓴 정진경(충북대 심리학과 교수)씨의 ‘고립된 엄마’, 일하는 엄마의 육아현실과 그 엄마의 퇴인 의식과 탈 퇴인 유아교육기관 교사와의 무의식적인 마찰을 꼼꼼히 짚어간 한림화(작가)씨의 ‘일하는 엄마’를 비롯해 달동네 탁아운동의 경험을 쓴 이말순씨의 ‘그때, 해송 아기 등지’, ‘엄마보다 더 많이 부르는 선생님’(변미양), ‘보육교사들이 일하는 환경과 그들의 고민’(송도영), ‘직장육아란 무엇인가’(조은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실려 있고, ‘조기교육의 신화’ 편에는 ‘모델없는 시대의 어머니들’(김효선 여성신문 편집부장) ‘조기교육은 필수인가’(우남희 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 2편의 글이 들어 있다.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길’에서는 ‘여자들이들을 자기로 키우는 방법’(김정희 여성학



강사) ‘남자의 육아참여’(정유성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회교육연구원) ‘장애아동과 공동육아’(오숙희 여성학 강사) 등의 글이, ‘어린이운동과 공동육아’ 편에서는 ‘한국의 어린이운동’(최준식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 ‘어린이 책사랑방 운동’(이주영 서울 성지국민학교 교사) ‘일본 어린이 극장운동’(김양주) 등이 실려 있고, 마지막으로 ‘공동육아의 이념, 철학, 방법론’ 편에서는 ‘공동육아란 무엇인가’(조형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공동육아공동체의 가치와 의미’(이기범 숙명여대 교수) ‘공동육아 운동론’(정병호 한양대 인류학과 교수) 3편의 글이 들어 있다.

목차와 저자 이름의 나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책에 참여한 필자들은 주로 사회학 인류학 여성학 아동학 교육학 등 사회문제와 육아문제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대학교수 그리고 70년대의 약운동에서 출발하여 빈민지역 아이들을 위한 유아원과 보육터전을 직접 만들고 지키고 확산시켜온 사람들이어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고 있다. 이들은 1990년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양육을 걱정하는 모임’을 결성, 새롭게 만들어지는 ‘영유아보호법’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우리 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라는 책을 발간해 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이 논의의 장까지 마련, 보다 나은 법안을 위해 애썼던 보람도 없이 줄속처리된 법안은 계층차별적인 보육정책을 낳고 이러한 정책이 제도화되어 사회적 육아의 영리화와 관료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보고 “더이상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공동육아연구회’로 이름을 바꾸고 지난 8월에는 연남동에 ‘신촌지역 공동육아 놀이방’을 열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어려서부터 ‘타인’과 함께하는 삶 가르쳐

이 책의 처음은 “아이는 엄마가 길러야 한다”는 종래의 통념을 깨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지배적 가치관의 틀에서 보면 육아를 통해 행복을 느껴야 마땅한 전업주부, 종일엄마들도 실제로는 육아에 자신이 없으며 전적으로 행복해 하지도 않는다. 아버지들은 육아의 책임을 면제받는 바로 그만큼 아이들과 가정으로부터 소외된다. 정유성 씨의 글은 그것을 모범적으로 극복해 보인 사례로 젊은 아버지들이 반드시 읽어둘 글이다. 또한 일하는 어머니들은 가족관계나 돈으로 개별적 해결방식을 찾기도 하고 놀이방, 어린이집에 의지해 보기도 하지만 현실은 그 어느 쪽도 만족스런 대안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공동육아’다. 물론 이 책은 육아에 대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고민을 고루 담고 있다. 하나하나가 읽어보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주제들이다. ‘공동육아’는 현실적으로 가장 절실한 문제의 답변이어서 눈길을 더 끄는 주제일 뿐이지 이것이 최상의 대안이란 말은 아니다. 저자들이 말하는 공동육아는 공식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함께하는 매일의 생활이라는 개념으로 출발한다.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고유한 개성을 가진 생명이라는 인식을 머리에 새기며, 그들이 어려서부터 ‘나’ 아닌 ‘타인’의 존재를 알게 하고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이 공동육아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신촌지역~놀이방’은 실험적 시도로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육아에 대한 새로운 꿈을 실현해 나가는 출발점이다. 그리고 육아가 여성에게나 그 누구에게도 억압되지 않고 여럿이 힘을 합쳐 즐겁게 참여하는 일이 되도록, 아이들이 판에 박혀 찍혀 나오는 복제물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어른과 아이가 함께 새로운 문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시도로 젊은 부모라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주제이다.

—정혜옥 기자